



미래차 산업 생태계 강화

도-김제시-한국물드김제, 123억 규모 투자협약

지평선산단에 1700평 규모 신규 공장 · 22명 고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김제시와 함께 ㈜한국물드김제와 총 12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열렸으며,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 회 의원, 고선영 ㈜한국물드김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물드김제는 지평선산단 내 5,000평(1만6,528㎡) 부지에 1,700평 규모의 사출부품 전문공장을 신설하고, 2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2027년 차세대 친환경 트럭(LT2) 양산 계획에 맞춰 가니쉬 부품, 데크 사이드 커버 등 주요 사출 부품을 안정적으로



(사진 왼쪽부터)정성주 김제시장, 고선영 (주)한국물드김제 대표,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물드김제는 2015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SMC(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료) 및 사출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사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24년 현대자동

차로부터 '올해의 협력사(상용 부문)'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내의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물드김제의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주)한국물드김제의 투자는 전북이 추진 중인 미래차 산업 생태계 강화의 핵심 사례"라며, "지평선산단을 비롯해 도내 산업단지를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긴밀히 협력해 이뤄낸 도-시군 연계형 투자유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차·첨단소재 분야 기업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저품질 수입산 농자재 지원금 집행 '안될말'

민주 이원택 의원, 품질 보증 기준 마련 필요성 강력 제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저품질 수입 농자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품질 보증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이의원이 제기한 대목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일부 농자재 지원 기준에서 '품질'을 배제해 저품질 수입산 농자재에 지원금을 집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이 의원이 농촌진흥청(농진청)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간 405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국산 PO필름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점유율이 33.2%로 정체된 가운데 국내 온실용 PO필름 시장의 3분의 2는 여전히 수입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원은 국산 농자재 개발



에도 수입 의존을 줄이지 못한 배경으로 농식품부의 지원 사업 지침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농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지침을 살펴보면 ICT 장비와 온실 골조는 KS규격에 따라 지원했다. 그러나 PO필름은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품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원 기준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품질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탓에 수입산 필름도 세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충남과 경남에서 저품질 수입산 필름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이 의원은 허술한 지원 기준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정부의 농자재 지원 사업에 명확한 품질 기준이 없다. 저품질 수입 농자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농진청 R&D 성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은 405억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품질 기준도 없이 보조금 사업을 운영했다. 이는 농가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라며 "PO필름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산 우수 R&D 성과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우수한 연구가 현장 점유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진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3주기를 맞아 전주 풍남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김관영 도지사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도록"

분향소 찾아 희생자 추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3주기를 맞아 전주 풍남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분향소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

생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전북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태원 참사 3주기 전북 추모대회'가 개최돼 도민들이 함께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한 사회

를 향한 다짐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태원참사는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일깨운 사건"이라며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첨단 농기자재 한자리에...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내달 4~7일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서

농업인 · 기업 교류, 경제 활성화의 장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기계박람회는 농업기계 산업의 발전과 첨단 기술 교류를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해 마련됐다.

전시장은 약 1만8,000㎡ 규모로 조성되며, 티와이엠(TYM)과 엘에스 트랙터 등 익산 소재 기업을 비롯한 전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품목은 400여 종의 주요 농업기계와 스마트팜 기자재, 농업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구성된다.



현장에는 '농기계 시연장(연시장)'을 운영해 실제 작업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시는 박람회 기간 익산 관광 홍보관과 우수 농특산물 판매관도 함께 운영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에게 지역의 매력과 특산품을 알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를 위해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교통·안전·환경정비·홍보 등 세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박람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각 부서가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관리와 교통, 주차, 편의시설 운영에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권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농업기계 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부서가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피터팬과 떠나는 환상의 모험

비밀의 마이랜드

일시

장소

대상

무대

체험

주최

2025년 11월 1일(토) 14:00~18:00

마이산북부 농촌테마공원 광장

마이랜드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친구는 누구나 환영!

코스튬콘테스트 / 마술광대극 / 비보이서커스

요정의 슬라임공방 / 인디언 마크라메 / 해적의 무기창고

악어가 삼킨 보물팔찌 등 다양한 체험과 모험이 가득!

진안군 관광과 문의 H포레스트 | 070-4870-0288